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시행

장흥군의회는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4차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의 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각종 현안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윤재숙 행정복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29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부서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오는 12월 12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결, 집행부에 이송하여 지적사항의 처리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장흥=임민기 기자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영광군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광사랑카드 매출로 발생한 수수료를 점포당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공통제출서류로는 신청서, 개인 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이고 과세유형별로 전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전년도(2022년) 총 매출액 3억 원 이하이며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로 인한 매출액이 2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급년 신규 창업자는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 매출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함평 축산단지 사토장서 농수로 제방붕괴 논란

연약지반 고려없이 무리한 사토 야적 국도 대로변 불구 세륵기도 설치 안돼

함평군에서 발주 공사중인 축산단지조성 공사현장에서 반출되어 운반된 사토 및 암을 야적하는 사토장에서 연약한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채 과도한 사토로 인해 농수로 제방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제방 붕괴사고가 일어난 사토장은 연다면 학야리 국도 1호선 대로변에 위치한 환경부 소유의 국유지로 함평천과 함평농수로가 흐르고 있어 지반이 약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토 야적으로 인한 어이없는 붕괴사고라고 지역민들의 민원이 들끓고 있다. 또한, 사토장에 야적된 토사 및 암

을 재사용 하기 위해 사토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있는 함평군은 사토장 위치가 국도1호선 대로변임에도 불구하고 덤프트럭 운행등의 안전 및 비산먼지발생 등에 필요한 세륵기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이번 발생한 붕괴사고의 제보자 A씨는 “여기 학야리 사토장은 애초 축산단지공사 설계에는 잡혀있지도 않은 사토장으로 공사를 하고있는 업체에서 사토장을 구하지 못해 갑작스럽게 함평군에서 제공한 사토장으로 지반검사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해서 발생한 사고이며,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함평군은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뽕이 밀려나와 붕괴된 제방.

이에, 축산단지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관계자는 “사토장 토질이 이렇게 까지 연약지반 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붕괴된 제방은 긴급조치로 농수로 흐름에 지장이 없게 뽕 제거를 하고 지반이 어느정도 자리

를 잡는 내년 봄쯤 제방보수공사를 완공한다는 계획을 함평군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축산단지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함평군 관계자는 “연약지반을 고려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라며 “하

루속히 인근 농민들의 농사에 지장이 없게 최대한 뽕이 복구작업을 실시하고, 더 이상의 사토반입은 없을 것이고 세륵기는 미설치 했지만 물차 등의 운용으로 대신했다”고 말했다. /함평=김용희 기자

담양 ‘인구 늘리기’ 각종 지원사업 추진

고교·대학생 기숙사비·군부대원 주거관리비 지원사업 접수

담양군이 하반기 인구 늘리기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담양군은 다음달 15일까지 하반기 고교·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과 군부대원 주거관리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교·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은 관내 전입 후 6개월 이상 지난 고등학교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107명에게 2,675만 원을 지원

했다. 군부대원 주거관리비 지원사업은 관내 전입 후 12개월 이상 지난 군부대원(부사관, 장교)을 대상으로 연 1회 20만 원을 지원하며,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은 부대원의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관외에서 2명 이상 관내로 전입한 세대에게 대소금품은 담양 쌀 등의 물품을 지급하는 ‘담양 곳곳꾸러미 지원사업’도 매월 추진하고 있다.

고교·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과 군부대원 주거관리비 지원사업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소속 학교와 군부대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참여소통실 ☎061-380-32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구늘리기를 위한 신규시책 발굴과 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채 기자

장성, 군민 행복시대 ‘성큼’… 사회보장 확대 집중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2차 회의…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의결

장성군이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장성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 대표위원들과 김한중 장성군수,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역사회보장은 지역민이 빈곤, 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행정적 제도다. 장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목표로,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 방향을 마련하는 법정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근거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한다. 이 가운데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 기관·법인·단체·시설 관계자들이 대표위원을 맡는다. 올해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난해 수립 용역과 보고회,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추진 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 4년이다. 목표는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

한 장성’의 실현이다.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세부사업 구체화로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기반을 구축한다. 이번 2차 회의에선 지난 4월 열린 1차 회의 때 점검한 43개 세부사업에 대한 올해 추진 실적을 심의하고, 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방향과 실행내용을 기반으로 변화된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장성=심재식 기자

영광, 탄소중립 실천 확산 정책포럼

군민과 함께 실천 결의·정책방안 등 논의



영광군은 지난 24일 영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은 기후위기가 생존의 위기가 된 지금,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영광군이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군민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모든 참석자가 함께한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 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기초강연과 주제 강연,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이번 강연은 ▲한국환경연구원 신동원 연구실장의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에 대한 기초강연과 ▲전남연구원 조승희 책임연구원의 “영광군 탄소중립 추진방향” ▲광주에너지파크 김광훈 센터장의 “기후변화와 시민 실천방안”에 대한 주제 강연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광주대 김병완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정책포럼에서는 환경전문가 패널들이 참여하여 지정토론과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영광군의 탄소중립 정책방안과 생활 속 실천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미래세대가 행복한 청정영광을 위해 모두가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탄소중립이 정책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장성군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장성 필암서원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산수간나도 절로
아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늙사오리

— 김인후 선생의 ‘자연가(自然歌)’ —